

제5회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대전외국어대학	성명	장형혜	학년	3	생년월일	1989년 3월 13일
----	-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거울 이야기

거울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볼 바
다 가장 많이 쓰는 필수품이라도 해도
과연이 아니다. 아버지님은 매일 출근하기
전에 넥타이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는 지
확인하곤 합니다; 어머니는 고객들에게 환
한 미소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자주 거
울 앞에 연습합니다; 본명으로 일하는 언니
는 매일 거울을 비추어 화장합니다; 할 아
버지님은 매일 오후가 되면 텔레비전을
화면서 거울 앞에 경극을 배운다; 나는
어제 꿈에서 거울이 나타나 끊임없이
상상이 떠올랐나.....

화면 A : 멀리서 어떤 멋있는 남자 A는
길을 걷고 있다. 이때 다른 두 남자가
맞은편에서부터 다가왔다. 남자 A의 눈에
떠올랐다. "뭐야, 하나님은 모관이 한 쪽으로
모이듯 흉악하고 키가 극히 크는데 하
나는 아이처럼 작고 몸이 뚱뚱하네. 진
짜 비웃서 죽겠구나." 이럴게 혼잣말을
하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고 놀
라운 표정으로 입만 닫지 못하게 보인
다. 웬걸! 다가가서 눈앞에 있는 것은

제5회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대전외국어대학	성명	장영혜	학년	3	생년월일	1989년 3월 13일
----	-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모를 거울이 있다.
 뒷말 : 힘겨 여기는 사람이 바로 자기
 일 수도 있듯이 사람을 자주 남의 단
 점만 보며 나에게만 눈가락질한다. 자기
 의 약점에 대해 거의 집중할 생각조차
 없다. 길에서 누군가 버리던 바나나 껍
 질을 밟아 쓰러져서 큰소리로 치며 욕
 을 한다. 하지만 이래도 불구하고 자기
 도 멋대로 쓰러기름 곳곳에 던져버린다.
 가끔 우리도 거울을 보며 자기 반성을
 하느 게 중요하지 않느냐?
 화면 B : 이 발소에서 머리를 자르게 했
 다. 남자 B는 거울을 보면서 백두하계
 보인다. 마침 이 발사를 칭찬하더니 뒤에
 서 앞은 이 발사의 손에 쥐 거울을 보자
 화를 낸다. 앞면은 아주 빳빳게 보이는
 데 뒷면은 바로 다리집에서 나오는 것처럼
 겹칠 시키는 겹초과 같다. 정말 입고
 웃긴다.
 뒷말 : 사람들은 항상 큰시만처럼 자기
 정면만 볼 수 있다. 고집스러운 살림을
 유지하기 위해 명동 가방, 화려한 집,
 비싼 차를 마련하려고 해서 방법을 선택
 하지 않게 되었다. 그래서 부정부패도
 나타나고 탐관우리라는 말 흔히 볼 수

제5회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대건외국어대학	성명	정명혜	학년	3	생년월일	1989년 3월 13일
----	-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있다. 부실한 물질적인 "행복"을 느끼기
 위해 명실상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 버
 려다. 이 경계 정신 없이 앞만 신경을 쓰
 면서 달리다 보니 자기가 진짜 원하는
 것이 할로 많아졌다. 결국 짚은 못에
 빠지지지도 모르고 남의 웃음거리가 될
 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될 것이다. 앞만
 보기 때문이다. 앞만 반짝반짝하게 만
 지 많고 가끔 거울을 통해서 뒷면에
 어떤 흉이 있는지 단 달리는 길에서
 노력하는 초심을 잃어버리는지 한 번
 집중해 보자.
 화면 C: 강물이 잔잔히 흐르고 있다.
 강아지 하나가 이 숲에 따라 산책하고
 있다. 마침 거울과 같은 강물이 처음
 보듯 즐겁다. 웃음이 지으면 강물에 있
 는 "쌍둥이 친구"도 웃어 주고 배친
 청하변 그 "친구"도 화난 모습을
 보인다. 그런데 강아지가 조금 뒤에 서
 면 그 "친구"도 사라졌다. 막상 재미
 있는 것을 발견하는 강아지가 설설해
 보인다.
 뒷말: 거울은 그냥 현실 물건의 상이
 다. 물건 자체가 사라지면 영상도 없어
 지기 마련이다.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

제5회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대전외국어대학	성명	장영혜	학년	3	생년월일	1989년 3월 13일
----	-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이 원리를 알면서도 불현실적인 꿈을
가진다. 이웃집의 아들이 영어도 잘하고
농구도 잘하고 팔방미인처럼 환영을 받
고 있다. 그래서 나도 내 아들에게 영
어 선생님을 찾고 "아들아, 열심히 공부
하라"고 당부하며 아들의 건강을 위하
고 시고 그를 농구팀에 참석하도록 시
키기도 한다. 굳이 아들을 위해서 하
는 것인데 결국 아들을 영어에 대하
여 관심을 덜 느끼게 되었고 원래
운동을 잘 못하는 체질이라서 그
런지 농구장에서 자주 다치고 농
구를 잘하지 못하는 탓에 자주 다
른 팀 성원들에게서 욕을 받는다.
행운에 입원하는 것도 다반사가
되고 정신 상태도 나빠지게 되었다.
그 뿐더러 자기가 원래 좋아하고
잘하고 있던 피아노도 완전히 포기
하게 되었다. 참 불쌍하다.
거울의 성상 원리와 같이 사
람의 성품을 복제하는 일도 불가능
하다. 나라면 옳고 바른 일을 하
기 싫다. 집정관 자기만이 할 수
있는 것을 좋아한다. 그래서
글을 쓰는 것도 즐겁게 한다.
글을 통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
들고 이 내 눈앞이 제일 행복하
지 않을까?

제5회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대전광역시대학	성명	장영혜	학년	3	생년월일	1989년 3월 13일
----	-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400

500